



전체참관기



글 | 金斗煥
(Kim Du Hwan)

- 화공안전기술사
- 한국기술사회 연구원장

E-mail: kdh860@hanmail.net



▲ 만찬회 전체 사진

제42회 한일기술사 심포지엄은 2012.10.17~19까지 일본 아이치현 산업문화공업도시이며 일본에서 3번째 큰 도시 나고야 시에서 열렸다. 10월17일 오전7시30분 한국기술사회 일행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인원체크 후 화물을 아시아나기로 붙이고 출국 수속후 8시40분에 탑승하여 10시 50분에 나고야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일본기술사회 실무진의 환영을 받으면서 미리 준비한 리무진 버스 3대에 분산하여 탑승 후 일본기술사회에서 제공한 간단한 김밥으로 점심을 하였다. 1호차는 축구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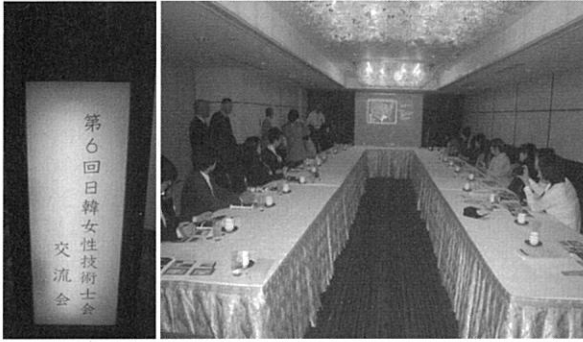
장으로 2, 3호차는 호텔로 직행하여 각자 여장을 풀고 회장단은 오후2시50분에 럭비축구장에 도착하였다. 한일기술사 친선축구팀의 간단한 행사를 우선으로 실내에서 시행하고, 축구장에서 양국 기술사 회장의 시축 후 경기가 시작되었다. 일본기술회 축구멤버는 20-30대 청년멤버가 45명이었고 한국기술사축구단은 40-50대의 중년이 많았으나 패기는 당당했다. 팀은 3팀으로 한일기술사 축구전은 전반15분, 5분휴식하고 후반15분으로 진행하여 1대0으로 한국기술사회팀이 승리하였다.



▲ 결승을 빌며 한국기술사 축구팀 기념사진



▲ 한영성 회장의 시축 광경



▲ 한일 여성 기술사 교류회의장 격려사(한국기술사회장)



▲ 나가하라

한일양국회장단은 축구장을 나와 한일여자기술사들의 심포지움 회의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하였다.

한일기술사실무위원회에 음식점에서 전야제 모임이 있었다. 양국일반회원은 호양원(浩養園)에서 양국실무위원과 회장단은 다른 음식점에서 40여명이 모여 서로의 안부와 담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였다.

심포지움은 10월 18일 오전 8시부터 430여명의 양국기술사회 회원들의 심포지움 등록이 시작되었다.



▲ 회장단 한일 실무위원 전야제

9시부터 개회식을 통해 양국 기술사회장의 인사가 있었고 내빈의 축사로 이시꾸라 나고야 시장, 주나고야 한국 총영사의 축사가 있었다.

9시 30분부터 주제발표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주제발표는 일본 기술사회 타부키 타카아키(田吹隆明)(정보공학)의 “기술사의입장으로부터

다양한 에너지전략을 생각한다”는 주제발표가 있었고 10시 40분부터 11시 40분까지 한국기술사회의 “기술사와 생태계 보전”이란 주제로 윤갑구(발송배전)의 발표가 위트 있게 진행되어 많은 질문과 박수를 받았다.

3차 산업혁명인 녹색산업 지능형 전력망 혁명 대응은 한일기술사들이 주체가 되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제성이 높은 한반도-일본간 전력계통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송유관 연계축구에 대해 제안했다.

12시 30분까지 일본 측과 한국 측의 질문이 2명 일은 후 끝이 났다.

점심은 5개 각 분과 회의장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한 후 1시 30분부터 각 전문분과 별로 분과회의가 6시까지 진행되었다.

제1분과는 환경 에너지 국토 관광분야에 대해서 일본 측 3명, 한국 측 3명씩 1인당15분자국어로 발표하고15분 통역 5분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2분과는 건설, 안전, 방재, 교통분야로 한국측 3명, 일본측 3명이 통역합쳐 25분씩 발표하고 5분 질문으로 좌장은 일본 기술사 부좌장은 김두환 한국 기술사가 진행을 맡았다. 3분과는 기술윤리 교육, FTA 관련 내용을 발표, 부좌장에 전상백기술사, 4분과는 전자, 통신, 기계, 부좌장에 김일 5분과는 영어로 자유주제를 발표 하도록 하였다. 부좌



▲ 심포지엄 등록 접수현황



▲ 42합동심포지엄 개최선언 일본기술사회 도시미 나까니시부위원장



▲ 윤갑구 기술사 주제 발표



▲ 나부기타카야키 기술사 주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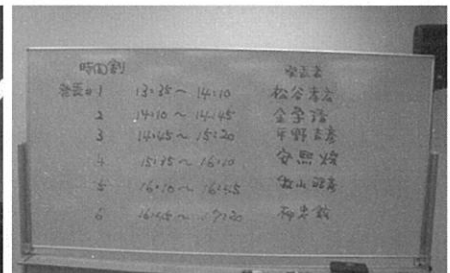
장에 여호영기술사가 수고해 주었다.

이번 발표에는 양국회장 특별분과회의도 새로 만들어져 양국기술발전을 위한 토론이 진지하게 있었다.

6시 30분부터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일본기술사들이 양쪽에 늘어서서 박수로 한국기술사들의 입장

을 환영해 주었고 일본기술사회 한일실무위원회 도시미나카니시(中西利美)부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국회장님의 환영사와 답사를 하였고 내빈소개와 축사가 있었다.

한국기술사회 김상구 국장 김일, 유충현 3명이 일본기술사회장으로부터 한일기술사회 우호증진에



▲ 분과별 회의



▲ 제42회 만찬회장



▲ 일본기술사 회장으로부터 기술사회 김상구 국장, 김일·유충현 기술사 감사패 시상



▲ 대구시장으로부터 일본 기술사 나카하라씨에게 감사패 증정



▲ 2013년 수원시에서 열리는 43회 한일심포지움 홍보

기여한 공으로 감사패를 받았고 나가하라씨에게 대구시장의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원형 테이블에 한국기술사 3~4명과 일본기술사 6~7명이 서로 인사교환을 하고 선물교환 및 여흥이 있었다. 일본 고유 전통음악과 춤이 있었고 양국 부인들의 합창이 있었다. 한국기술사회 부인들의 합창이 있었고 다음으로 일본 기술사회 부인들의 합창이 있었다. 내년 43회는 한국 수원에서 한일기술사 심포지움이 열린다는 홍보를 한 후 폐회를 하였다.

10월 19일은 2팀으로 나눠 산업시찰 A코스와 B코스로 나눠 A코스는 한국기술사 20명과 일본기술사 100명으로 구성되어 직조공장 등으로 방문하였고 B코스는 한국기술사 68명과 일본기술사 32명으로 도요다 자동차 회관과 150년된 미소제조공장

을 방문하여 점식식사를 한 후 공장안내를 받아 공장내 공정설명을 듣고 나고야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서 일본기술사회회원들의 배웅받고 헤어졌다. 이때가 2시 30분이여서 공항에서 2시간을 보냈다. 6시 30분에 한국 인천공항에 귀국하였다. 입국 후 공항에서 각자 해산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단조로운 느낌이 들었다.

(원고접수일 2012. 11. 10)



▲ 도요타 자동차 회관 전시장 산업 시찰



▲ 미소 제조 공장 견학



▲ 미소 발효 저장 탱크